

학교 폭력! Stop!

조각가 빅터조

들어가며..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전세계에서 최하위라고 해.

성과위주로 행복의 척도를 매기다 보니 학업과 진로결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것은 또다시 부모와의 갈등을 초래하게 돼.

그런 과정에서 일부 어린이들은 자신의 결핍을 느끼게 되는데.. 그 결핍을 겉으로는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 불안, 초조, 나약함을 포장하고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아이들은 친구를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자신 뿐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교 폭력은 사회 모든 폭력의 축소판이야.

고민의 시작..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나의 고민은 시작됐어.

아이들은 폭력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혹시, 어른들의 모습에서 배운 건 아닐까?

인간과 사회의 모습이 원래 그런 걸까?

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학교 폭력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 근절할 방법은 없을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강자가 약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착취한다면 한낱 짐승과 다를 바가 있을까?

작은 고민과 실천이 모이면 우리는 더욱 더 행복할 수 있고, 더욱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도 있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정당화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



학교 폭력은 모두가 피해자..



얼마 전.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된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 엄청난 배구 팬이 아님에도 참 좋아했던 두 선수들인데, 학교 폭력 사건이 불거지면서 선수생활을 접어야 했지. 국가대표로 활약 할 만큼 실력도 뛰어난데다 마침 얼굴도 비슷한 1란성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뛰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둘의 선수생활을 지켜보았겠지. 미모까지 출중해서 자동차 CF에도 등장하고 정말 준비된 스타였는데, 어린 시절의 과오로 그렇게 한 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조금 안타깝지도 했어. 일부에서는 실력이 뛰어나니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었지. 하지만 잘났다고 중대한 범죄를 눈감아준다면 그 또한 건강한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해. 당연한 결과지. 결국 폭력 피해자도, 당시의 가해자도, 한국 배구의 전력도..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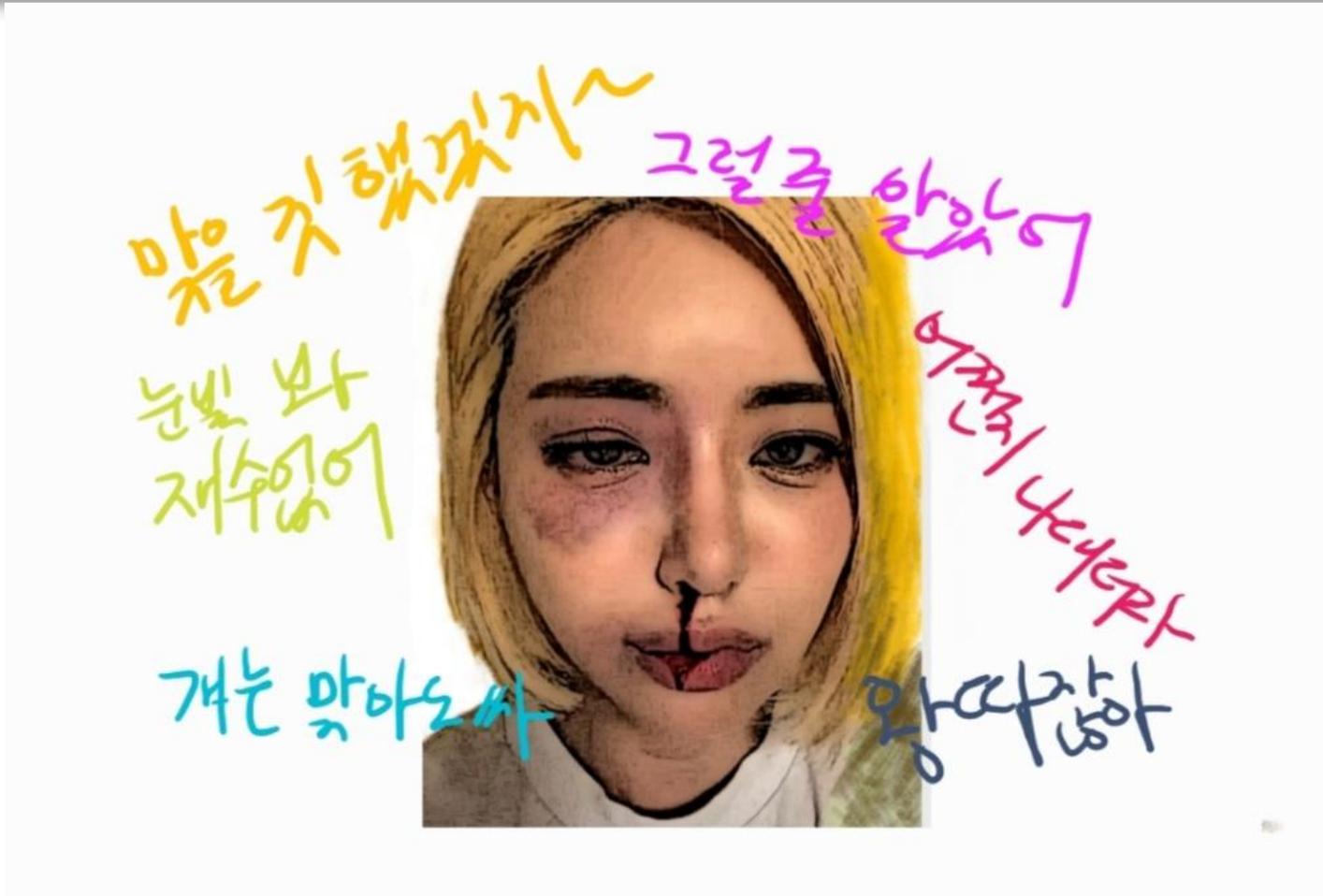
중화이론..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게겐 죄의식을 중화시키는 합리화 기술이 있다.

사이크스 & 맛차의 중화이론 (1957년)

1. 책임의 부인 - 내 잘못이 아니다.
2. 피해자의 부인 - 피해자가 자초한 일.
3. 가해의 부인 - 때린 건 그냥 장난이었어.
4. 비난자에 대한 비난 - 남들에 비하면 나는 별 거 아니야.
5. 보다 높은 가치에 대한 호소 - 의리 때문에 동조했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지 마세요..



무언가 맞을 짓을 했나보네요. 같이 욕해봅시다.

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당할 만 하니까 당연히 당해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학교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 될 수 없다.

서열과 계급..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국가에 살고 있어. 하지만 옛날처럼 계급이나, 신분, 지위가 없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인간들간의 높고 낮음이 존재하는 것 같아. 그것이 정치나 행정과 관련된 권력이든, 경제논리에 관한 권력이든..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계급을 학습하고 일정 수준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은 그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인 것 같아.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착취하는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는 것 같아. 결국, 친구를 자신과 동등한 입장으로 대하지 않고 높낮이를 따지게 되는데.. 아직 사회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부나 권력이 없으니까 결국 힘(무력)의 논리가 작용하게 되지. 특히,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은 심리적 불안이나 결핍을 폭력으로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 자신이 피해자로 전락할까 봐 두려운거야.

서열과 계급..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하나 발견했어. 쥐들도 서열을 따진다는 거야. 6마리의 쥐를 한 곳에 가두고 물을 건너야 먹이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1번 쥐는 먹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자기먹이를 빼앗기지도 않으며, 남의 빼앗을 수도 있어. 3,4번 쥐는 열심히 먹이를 가져오지만 먹지 못하고 2,3 번 쥐에게 빼앗기고 말아. 2,3번 쥐는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먹이를 가져올 생각도 않고 그저 3,4번 쥐로부터 빼앗기만 하지. 6번 쥐는 먹이를 가져 올 수도, 빼앗을 수도 없어. 아무것도 못 해. 재미있는 건, 여러 그룹 중, 1번 쥐들만 모아놓아도, 6번 쥐들만 모아놓아도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지능을 가진 동물들 사이에는 항상 서열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 자연스러운 서열과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인간사회가 유일해. 쥐처럼 살 것인가?

어떤 생각이 드니?



뭐야, 왜 친구를 괴롭혀? 맞는 애 불쌍하다. 맞을 짓 했나? 괴롭히는 애들이 못 된 건가? 어릴 땐 저럴 수 있지. 오죽하면 저러겠어? 가서 도와줘야 해. 괜히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나도 피해를 보면 어떡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니야. 지들끼리 알아서 풀어야지 어른들이 개입되면 더 안 좋게 꼬일거야. 청소년이라고 봐주면 안돼. 엄중처벌 해야 해. 아직 애들인데 뭐. 어른 되면 알아서 바뀔거야. 넌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니?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가..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분노야. 그런데 최초의 그 분노는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거야.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든, 폭력적인 주변 사람들이든, 개인적인 분노가 있었는데.. 그 분노에 의해 시작된 폭력은 결국 친구를 힘들게 만들고, 최초의 분노로부터 발생한 피해의식은 오히려 이 정당하지 못한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어지겠지. ‘내가 더 힘들어.’, ‘나는 잘못 없어’, ‘너가 맞을 짓 했어’,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뭘..’

물론 만의 하나는 타고난 악마일수도 있겠지, 하지만 후천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 인간사회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오류에서 오는 경우가 많을거야. 폭력적인 부모, 폭력교사, 군대문화, 군대문화에서 번진 조직문화 등은 잠정적으로 오류와 분노의 씨앗을 품고 있어.

약자를 괴롭히는 이유..

분노 : 자신이 약자였을 때 당한 것을 엉뚱한 약자에게 쏟아내는 것.

두려움 : 자신이 약자라는 것이 밝혀져 괴롭힘을 당할까 봐 심리적으로 강자로 위장하기 위해 약자를 괴롭히는 것.

학습효과 : 군대, 학교 등에서 흔히 발생.

이익 : 통제, 착취

상황 : 루시퍼 효과

넌 어느 쪽이야?



야 왜 그래~ 장난이잖아~ 알았어 미안해~ 아, 미안하다고~ 아, 진짜로 미안하다고~ 아, 미안하다니까~ 씨발, 내가 미안하다고 했지!! (그 다음은...)

넌 어느 쪽이야?

애초에 동등한 친구 입장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을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친구가 사과를 들어주지 않았어.
그럼 때려도 되는걸까?

언쟁이 오고 갔더라도 폭언과 폭행이 없었다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힘 없는 친구가 그냥 적당히 사과를 받아주고 넘어갔다면 향후,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까?

학교 다니면서 이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니?

너는 어느 쪽이고 어떻게 행동했니?

혹시 아직도 이런 상황에 당면하고 있지는 않니?

학교 폭력의 문제점..



학교 폭력의 가해자는, 때로는 자신이 가해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때로는 피해자도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여러분 반에 혹시 따돌림 있어요, 없어요?

학교 폭력이 있었던 반 아이들을 만나달라고 교장선생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반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반에 따돌림 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하기에 다시 물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저기 뒤에서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있어요” 대답해요. “그럼 그 아이가 몇 번일까요?” 물었더니 일제리 “20번이요.” 그럼 여기 혹시 짱 있어요? 그랬더니 다들 큰 소리로 “누구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은?” 했더니 이번에도 큰소리로 “누구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의견도 분분하고 목소리가 작아져요. 아이들은 처음 번호와 마지막 번호를 알고 있어요. <중략>

“여러분 1짱이 없어지면 따돌림이 없어질까요?” 했더니 아니래요. 그럼 누가 또 가해자가 될까 했더니 2번 짱이래요. 따돌림 당하는 20번이 전학가면 따돌림이 없어질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그 다음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19번이요~” 그럼 19번이 또 전학가면? “18번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또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러면서 교실에는 혼란이 찾아와요. 내가 정확히 몇 번 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침묵이 찾아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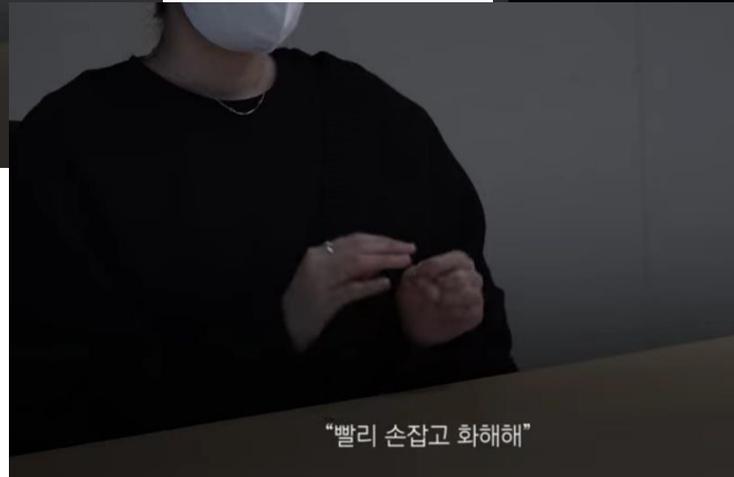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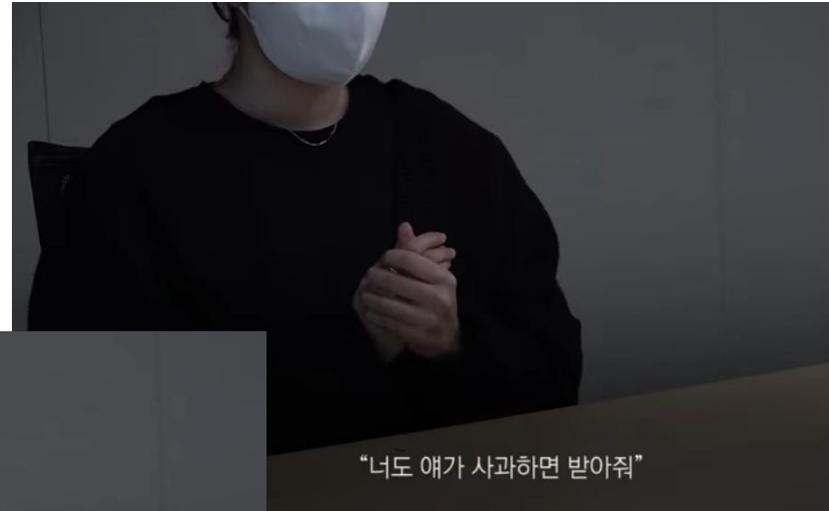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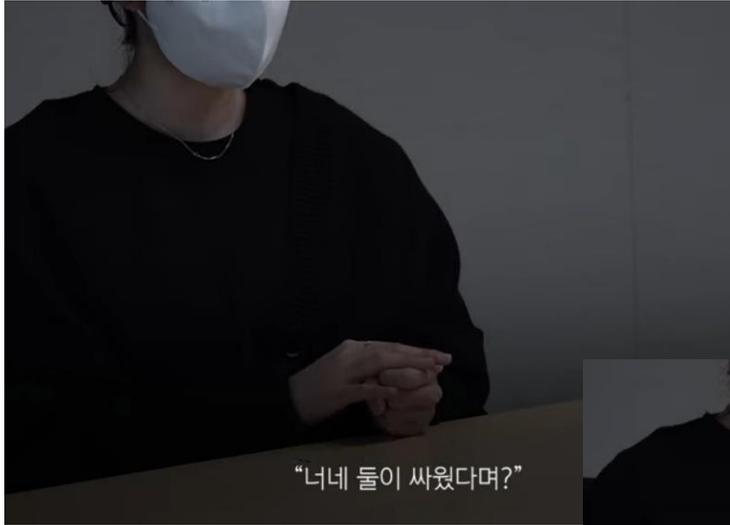
표창원 경찰대학교 교수 강연 중

가해자가 더 당당한 학교 폭력..



국가대표 배구단에서 일어난 폭력사건.
왼쪽이 피해자이고 오른쪽이 가해자야.

억지 사과..



어쩌면 어른들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지도 모른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찾다가 이런 일러스트를 발견했어.
목에 밧줄이 섬찔한 느낌을 주네.

한 아이가 저녁 식탁에서 부모님께 물었어..

“엄마, 아빠~ 우리 반에 왕따 당하는 애가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 그 친구를 괴롭히는데 도와주어야 할까요?”

엄마는 혹시라도 자기 아이에게 불똥이 튀어 같이 해코지를 당할까 봐 절대 나서지 말라고 일렀대. 아이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

그리고 다음 날.. 아이는 학교에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는 그 길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 사실 어제 저녁 식탁에서 했던 이야기는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던 거지.

누구라도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상황에서 자신의 부모님마저도 방관의 목소리를 내자, 더 이상은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거겠지.

일부의 가해자, 일부의 피해자, 그리고 수많은 방관자.

학교 폭력 가해자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다. 가해자 자신은 그 상황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가해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학창시절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무용담처럼 자랑하고 다는 경우도 허다하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아주 가끔 눈에 띈다. 그들은 지우기 힘든 큰 상처를 안고도 오히려 그 사실이 부끄러워 쉬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경우에서도 자신이 학교 폭력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일부의 가해자와 일부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이 학교 폭력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학교 폭력을 목격하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흔히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방관했던 것이다.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방관하지 않는 태도이며, 학교 폭력을 키우는 최악의 방법은 방관하는 태도이다. 우리 모두 동참해야만 한다.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면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보자. **“Stop! 지금 당장 멈춰!”**

Thank You